

## 대학도서관 자동화에 따른 도서관조직변화

A Study on the Organizational Changes of University  
Library in Accordance with Its Automation

김혜주,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HyeJoo Kim,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ungang University

본 연구는 첨단 정보기술의 도입에 따른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조직의 변화를 인력구조와 직무구조적인 측면에서 조사하고, 대학도서관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변화될 경우 효율적인 조직운동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변화요소들에 관한 이론을 국내외 문헌을 통하여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 1. 서론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지금까지 도서관 규모의 증대, 업무 내용의 변화, 정보 기술의 도입, 이용자요구의 변화 등에 따른 도서관조직 변화와 도서관 자동화에 따른 기존조직의 불합리성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도서관의 일반적인 조직 연구나 사례 연구들에 비해 훨씬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외국의 경우 자동화 초기 단계에서 부터 도서관 조직개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많은 이론적·실증적 연구들이 이루어져있는 반면, 우리나

라에서는 도서관 자동화에 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 이르러 도서관 자동화작업이 비교적 빨리 진행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경우 융통성있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미리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변천과 정보기술의 도입에 따른 조직구조의 변화요소들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의 자동화에 따른 조직구조의 변화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후 좀 더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조직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대학도서관의 조직구조

일반적으로 대학도서관의 조직구조는 기능과 책임을 분배해서 부서별로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형태로서 나름대로 경영상의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이와같은 기능적 구조와 집권적 의사결정 체제에 따른 문제점 또한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도서관의 기능에 따른 부서의 구분은 조직구조의 목표가 정보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에 있기 보다는 오히려 자료정리의 편의성에 있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접봉사 부문이나 직접봉사 부문간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편목부서는 이용자 요구에 관계없이 완벽한 레코드를 생산을 업무의 제 1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참고사서는 이용자 편의위주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제 1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기능조직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은 과외과 사이에서 여러 활동을 조정하고 스케줄을 마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 대학의 무형정보학과에서도 "편목업무"와 "참고업무"라는 서로 다른 업무유형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하고 있다. 오늘날 정보기술의 혁신은 현재의 부서간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있고 간접봉사와 직접봉사간의 유기적 관계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 근래에 이르러 대학도서관은 조직과 관련한 변화에 대해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1960년대 이후 도서관에서는 컴퓨터를 위시한 각종 정보기술과 그에 따른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하여 조직상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조직변화의 예로 1) J. R. Euster는 도

1) Joanne R. Euster, The Academic Library Director ; Management Activities and Effectiveness(New York

서관시설의 변화, 자동화 프로젝트 도입, 내부조직의 변화, 캠퍼스의 다른 실체와의 관계변화, 자원 확보 방안의 마련 등 5가지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2)Clint와 Sinnott는 열람업무와 정리업무간의 구분약화, 도서관에서 새로운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수용, 전문직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3) Atkinson은 주제별 혹은 자료형태별 전문화, 도서관 기록유지와 절차의 온라인 시스템화, 도서관 조직단위의 소규모화 및 분산화, 중앙집권적 경영관리를 들고 있다.

## 3. 국내 대학도서관의 자동화 현황

국내의 경우, 연구기관이나 전문 도서관에서 먼저 자동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대상은 주로 정보검색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치중하여 왔다. 대학도서관은 1980년대 중반부터 자동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초기에는 컴퓨터의 도입과 함께 부분적인 시스템 개발이 시작되었다. 대학도서관으로는 최초로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1980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수서, 정리, 대출, 영기간행물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1980년대 초기에는 대부분의 대학도서관들이

; Greenwood press, 1987), : 77-78.  
 2) Huge F. Cline and Lorain T. Sinnott, The Electronic Library : The Impact of Automation on Academic Libraries (Lexington : Lexington Book, 1983).  
 3) Atkinson, Hugh C., "The Impact of New Technology on Library Organization," the Bowker Annual of Library and Book Trade Information, 29th ed.(New York : R. R. Bowker, 1984).

외국 소프트웨어사가 제작한 패키지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수정하여 서양서 편목을 하였고 그에 대한 목록카드 및 소장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국외 정기간행물 처리에도 응용하였다. 점차로 자동화는 동서편목까지 확대되어 도서관의 목록은 동서, 서양서, 정기간행물을 검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단계가 좀 더 발전되면서 도서관 협력망의 구축계획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4) 1994년 9월 말 현재 우리나라 54개 대학도서관 중 Total System으로 자동화 되어 있거나 자동화를 계획하고 있는 28개 대학도서관의 현황을 보면, Total System으로 자동화가 되어 있는 도서관은 8개이며, 15개의 도서관은 Total System으로 되어있으나 참고봉사시스템과 연속간행물시스템의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또한 5개의 도서관에서는 Total System중 수서시스템과 정리시스템만이 자동화되어 있었다. 현재 대학도서관의 자동화 뿐 아니라 도서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이나 새로운 축적매체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 4. 설문자료의 분석

조사대상은 Total System으로 자동화된 7개의 대학 도서관의 사서 총 120명 중 설문에 응한 103명의 사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동화가 시작된 이후 도서관조직의 변화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력구조의 전체적인 면에서 직원의 증감이나 부서간의 인력이동, 전산요원의 충원, 중간관리층이나 경영인력층의 증감등의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4) 동아일보, 1994년 9월 28일, 8면.

2) 인력구조의 개인적인 면에서는 업무가 자동화됨에 따라 적성에 더 맞다고 답한 사서가 71.8%, 업무에 대한 흥미나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고 답한 사서가 56.3%였고, 종래의 경력이나 연공위주의 선후배 질서가 능력위주로 변해가고 있다고 답한 사서는 32%,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사서가 52.4%였다. 컴퓨터의 운용능력은 61.2%의 사서가 연령이 낮을 수록 높으며, 60.2%의 사서는 근무경력과는 상관없다고 답하였다. 학력이 높을 수록 컴퓨터 운용능력이 높다고 답한 사서는 21.4%, 학력과 무관하다고 답한 사서가 39.8%였으며, 직급이나 관리자의 리더십에 따라 컴퓨터의 운용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답한 사서는 60.2%였다.

3) 조직구조적인 면에서 자동화 이후 조직내의 직원수, 직위의 수,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 조직의 계층구조 변화나 조직구조의 확대, 부서명칭의 변화, 부서의 통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설된 부서로는 단국대의 경우 도서관 시스템실이 서울대는 네이타베이스 구축반, 소프트웨어 개발계, 관리과 그리고 이화여대는 자료 입력실과 전산실이 신설되었다. 부서의 분할이 있었던 도서관은 건국대의 경우 열람과가 참고서지과와 열람과로 분할된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카드배열반과 이화여대의 자료입력실이 없어졌다.

4) 직무구조적인 면에서 자동화 이후 업무의 처리단계는 44.7%, 일일업무량은 47.6%, 외부기관과의 업무협력은 51.5%, 도서관 이용자수는 55.2%가 증가하였으며, 오류율은 56.3%가 감소하였으며, 43.7%의 사서가 직무에 만족한다고 답하였지만 47.6%의 사서는 변화없다고 답하였다. 업무내용에 있어서는 66.7%의 사서

가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하기를 좋아하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형태나 정보내용에 있어서도 7개의 조사 대상 도서관 모두가 자동화된 시스템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답하였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인력구조에 있어서 도서관 자동화에 따른 인력구조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전산 전문 직원의 충원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도서관 자동화에 따른 업무처리 및 정보서비스 형태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 첨단컴퓨터기술, 뉴미디어를 다루는 능력 및 다양한 주제배경을 가진 전문직 사서를 대폭 충원하여야 할 것이다.
- 2) 조사대상 7개의 도서관 중 4개 도서관만이 도서관을 위한 단독의 전산실이 설치되어 있다. 컴퓨터 테크놀러지와 자동화 업무를 관장하고 도서관의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명실공히 전자도서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전담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
- 3) 조사결과 기능별 부서를 주제별 부서로 개편한 도서관은 없었지만,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정보기술수준이 이용자 중심의 정보지원체제로 변화하는 추세이고 Total System이 완성됨에 따라 직무환경의 구조화 경향이 점차 줄어들고 정보탐색, 소장사항 확인, 색인, 초록, 원문의 제공 등 정보봉사 업무는 이용자의 정보욕구에 따라 자율적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조직은 전통적인 기능별 부서보다는 주제분야로 구분된 부서와 일반 서비스(참고, 학부도서관), 특수집서(교서실, 시청각자료실), 전산실 등의 부서를 두고, 각 부서내에서 기능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를 두고, 각 부서내에서 기능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 4) 분관 또는 분야별 도서관이 늘어남에 따라 도서관전체의 기획, 정책수립 및 시행, 도서관 자동화를 포함한 새로운 정보테크놀러지의 응용, 채택 그리고 인사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이 최고경영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중앙 집권적 조직이 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노옥순, 1993. "자동화와 정보기술이 도서관의 조직구조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대논총 : 31-64.

Adan, A., 1989. "Organization Change in Law Libraries : The Impact of Automation on Traditional Library Structure," Law Library Journal, Vol. 81, No. 1 : 95-100.

Boss, Richard W., 1989. "Information Technology," ALA Yearbook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4 : 122-124.

Michael von Cotta-sohnberg., 1990. "Automation and Academic Library Structure," 윤희운 역, 도서관문화, 제 31권, 제 4호 : 15-30.